

지속 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한 제언

기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전남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교육·문화 인프라의 과도한 격차 등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패널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의 취업자 비중은 51.3%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59.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 비중은 3.3%에서 2.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남은 2.6%에서 3.0%로 소폭 증가하며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까지 증가하며 전남 지역의 2023년도 청년 인구 비중은 19.3%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국, 청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는 유일 방법이자,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어 인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선 광주광역시의 3대 주력 산업인 헬스케어·자동차·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통해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을 통해 첨단산업과 항공 정비산업이 융합된 광주·전남을 선순환의 중심지로 만들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으로 250만평에 달하는 광주 공항부지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안공항 주변에는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고속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항공물류 허브 육성을 통해 지역 농수산업과 제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산업구조는 광주 첨단산업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을 지속 가능한 경제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동시에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온 세계 1위 조선·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자 등 8대 주력 산업군은 중국이라는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 줄줄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산업은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을 압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광주·전남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무안이 항공과 물류 허브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에 무안군의 참여를 첫 시작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탄핵정국 혼란 속 지역 민생 뒷전 안돼

시·도 민생경제 대책 마련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충격파가 민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충격에 빠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치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가 조만간 내년 예산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또다시 힘겨루기 중이다. 그나마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예의주시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피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집무실에서 실국장 현안회의를 열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흑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일 예측되는 등 비상상황"이라며 "여기에 고통을·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조속히 집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치달은 한국경제는 환율 급등(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충격파가 여전하고, 고금리와 가계 부채 급증,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 이란 불안감까지 감돈다. 당장 서민경제가 위태롭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피폐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회가 서둘러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고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 지방정부가 앞장 서 민생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금의 버려질 시간을 벌 뿐이다.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일은 국가와 정치권의 몫이며, 의무이다.

한강 노벨상, 좌절한 국민에게 위로와 힘

오늘 스웨덴서 시상식

202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다.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한강 작가가 시상식 무대에 오른다. 한국 문학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한강 작가의 시상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생생히 목도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간으로 10일 자정 시상식이 생중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다채로운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전남도는 같은 날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도민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 특강, 시 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으로 치러진다. 전남도문인협회 또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저서를 참석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흥군도 노벨상 시상식 시간에 맞춰 한승원 문학학교에서 축하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계획이다.

한강 작가는 시상식에 앞서 지난 6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관한 입장을 표했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계엄 상황이 2024년에 다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3일 밤 한국에서 전격 발표된 계엄령은 한강이 쓴 작품과 연결된다. 작가의 작품은 늘 억압과 폭력, 그로부터의 회복라는 주제가 중심이 돼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다. 그러나 국민들의 용기에도 탄핵은 불발됐다.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국회 의사당을 에워쌌다. 영화권의 날씨에도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길 기원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8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유럽연합(EU) 가입 노력 중단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1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비루하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가볍고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격과 행동이 심히 경박스럽고 품위가 없으며 뒤편이가 천박한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우리는 이런 '비루함'을 목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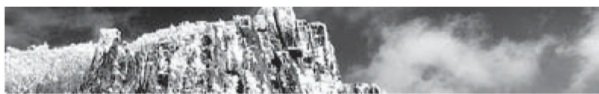
TV에 갑자기 나와 '야당이 너무 괴롭하니 경고 차원에서 계엄하겠다'는 대통령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는데, 뒤이어 지난 7일에는 국가의 주권인 국민들이 분명히 '탄핵하라'고 명령하는 데도 '야당 잘되는 꼴은 못본다'면서 투표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이 그러했다.

필경 당신들은 국민들을 대표하겠다고 뽐낸 사람들이다.

그 어떤 명제 앞에서도, 그것이 대통령이던 당이던, 하물며 그 이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들에게 힘을 주고 권력은 준 이의 말을 따를 것을 천명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그날, 국회의사당을 떠날 때 아니 그 이전인 계엄령이 떨어져 190명의 의원들이 모일 때 자리에 없던 순간부터 당신들은 '국민'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높은 것을 위해서 국민이 준 것들은 다 내려



놓아라.

애당초 그 누구도 당신들에게 국민을 거스를 힘을 준 적이 없다. 그런 권리는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을 넘어서는 절차는 없고, 국민 위에 있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없다.

당신들은 이미 한번 보지 않았는가. 국민들의 손에 끌려 내려 온 무능력하고 부정부패에 빠진 한 대통령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또한 그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자멸했는지도.

그런데도 불과 108명이라는 숫자로 대한민국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직 당신들의 차레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스스로 먼저 나서 변호표를 뽑으니 당신들과 역모를 벌인 대통령과 왜 한팀을 꾸렸는지를 뼈저리게 잘 알겠다.

그러니 이리 좋은 말로 정중히 말할 때, 이제 그만 멈추거나 내려와라.

이 추운날 밖에 나가는 싫지만, 필요하다면 수백만의 국민들은 가까이 그대들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릴 수 있으니 말이다. 당장 이번주라도.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